

울산 석유화학단지 정전 “피해확산”

삼성석유화학·카프로·KP케미칼 포함 10사 ... 피해액 수십억원대 추정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기업 20여사 가운데 10여사의 가동이 일부 중단됐다.

석유화학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주와 공단 입주기업에 따르면, 11월28일 오전 10시 경 한주로부터 공급 받는 전기가 갑자기 끊겨 카프로와 KP케미칼, 삼성석유화학 등 10여사의 일부 공정의 가동이 중단됐다.

전기는 40여분만에 공급됐으나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가동이 한 번 멈추면 연료와 제품 등이 굳어버려 재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공장 가동이 12월 초로 지연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주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단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30>